

2021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100 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답안지에 주어진 문항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3.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4.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5.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술의 주체를 높여서 표현하는 방법을 주체 높임법이라 한다.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다.”에서 집에 오신 행위를 한 주체인 ‘할머니’는 높임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주격 조사로 ‘이/가’ 대신 ‘께서’를 쓰고 서술어의 어간 뒤에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여 주체 높임을 표현하였다. 이 외에도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등의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에 대한 높임을 표현하기도 한다.

목적어 또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여 표현하는 방법을 객체 높임법이라 한다. “영수는 할머니께 진지를 차려 드렸다.”에서 ‘할머니’는 영수가 진지를 차려 드린 대상이므로 문법적으로 객체가 된다. 이 문장에서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밥’ 대신 ‘진지’를, ‘주다’ 대신 ‘드리다’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객체 높임법은 대개 ‘여쭙다’, ‘뵈다’, ‘모시다’, ‘드리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조사 ‘에게’ 대신 ‘께’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방법을 상대 높임법이라 한다.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듣는 사람에 대한 높임이나 낮춤의 정도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 지금 학교에 갑니다.”는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고 있고, “집에 빨리 가라.”는 종결 어미 ‘-아라’를 사용하여 대화의 상대방을 낮추고 있다.

대화 상대를 높이려는 의도가 지나쳐 높임 표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 과도한 높임 표현은 특히 고객에 대한 친절한 태도를 요구하는 업종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은 신상품이세요.”나 “주문하신 음식이 나오셨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때 ㉡ 각 문장의 주체인 ‘제품’이나 ‘음식’은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제품은 신상품입니다.”, “주문하신 음식이 나왔습니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나) 기능론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적 통합 체계로 보고, 사회를 이루는 사회 제도나 집단 등이 상호 연관성을 갖고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가 유지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기능론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개인도 사회 질서를 위하여 사회 속의 한 부분으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본다. 기능론에서는 구성원 간의 합의된 가치와 규범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한 가치나 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한다. 또 사회문제나 갈등은 각 구성 요소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기능론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래 기능을 회복하면 사회는 다시 안정을 이룬다고 본다.

갈등론은 한 사회에서 희소가치를 많이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갈등론은 한 사회의 재화, 권력과 같은 희소가치가 배분되는 과정에서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난다고 본다. 사회의 안정과 유지에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규범이나 사회 제도 등을 통해 피지배 집단을 억압한 결과라는 것이다. 갈등론에서는 지배 집단의 억압에 대하여 피지배 집단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사회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갈등론에서는 사회 운동이 사회 집단 간의 지배와 억압을 해결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들이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의 해석에 초점을 두어 현상을 보는 관점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면 사회는 일상생활을 하는 개인들이 다양한 상징을 활용하여 의미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곳이다. 상징은 사물이나 인간의 동작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몸짓이나 기호, 언어, 문자, 옷차림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농담을 이해하고 웃거나, 교통 신호를 어긴 사람이 경찰관을 보고 놀라는 것은 언어나 옷과 같은 상징을 공유하기에 가능하다. 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각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 상황 정의를 통해 행동한다고 본다.

1-1. 아래의 <보기>는 (가)에서 제시된 ㉠의 사용을 허용하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보기>의 ㉡와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가)에서 찾으시오. [20점]

<보기>

“이 제품은 신상품이세요.”와 같은 문장은 높임의 대상으로 부적절한 사물을 높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법적 규범에 어긋난 것으로 판정한다. 사실 이와 같은 문장에서 화자가 실제로 높이려는 대상은 ‘음식’이 아니라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청자(듣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사용자들이 문법을 파괴하거나 무시했다기보다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선어말 어미 ‘-(으)시-’의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용법을 창출해 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재는 선어말 어미 ‘-(으)시-’의 기능이 ( ㉡ ) 높임법에서 ( ㉢ ) 높임법으로 확장되고 있는 과정인 셈이다.

1-2. (나)에서 제시된 사회·문화적 현상을 보는 관점들 가운데에 기능론을 바탕으로 ㉣의 입장을 지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서술하시오. (60자 이내) [20점]

1-3. (나)를 참고하여 ㉤을 개인 간에 상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특정한 상황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에 따른 결과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을 불러일으키는 구체적 상황을 <보기>에서 찾아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의 입장을 구별하여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언어의 변화 과정이며, 더 공손하게 들리는 표현이 나쁠 건 없다는 긍정론도 없지 않지만 영터리 존댓말로 덧칠된 사물존칭 현상이 고유한 우리 문법을 파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어쨌든 서비스 업계 직원들은 사물존칭이 잘못된 표현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그런 표현을 써야 격식 있는 대우를 받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란단. 만에 하나 직원이 공손하지 않다면 고객들이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돌아간다. 가뜰이나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어려운데 직원 입장에서 표현 문제로 자칫 고객의 심기를 거스를 일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제도는 국가마다 다른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차이가 발전된 제도와 뒤떨어진 제도의 차이라고 간주한다. 이들은 뒤쳐진 국가들은 앞선 국가의 경제제도를 모방하는 정책을 써야 하고,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경제제도의 차이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충분히 성숙한 경제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국은 노사관계, 기업지배구조, 기업 간 관계, 자금조달, 직업훈련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성숙한 시장경제는 제도의 차이와 유사성을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기업들이 주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따라서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재무제표 등 시장에 공개된 정보에 의존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윤 변화에 민감하다. 자유시장경제 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기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수는 단기적 이윤에 연계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은 최고경영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다. 따라서 단기이윤이 떨어질 경우 쉽게 해고할 수 있고, 반대로 투자 기회가 있을 경우 신규 채용에도 부담이 적다.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과 신규 창업을 통해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노동자의 재배치, 해고와 채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이윤율이 낮은 산업에서 실직과 퇴직이 많으나 이윤율이 높은 산업으로 금융자원이 신속히 이동하여 신규 채용하므로 실업률은 낮고 노동력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조정시장경제는 주식시장이 덜 발달되어 있고 자금 조달은 기업들끼리 서로 투자를 해서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간 네트워크에 주로 의존한다.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주주들은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깊숙한 정보까지 획득할 수 있고,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은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고 노동조합과 최고경영자가 합의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해고가 어려워 직업안정성은 높으나 노조와의 갈등이 신규 채용에는 부담이 되어 실업자가 신속히 구제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하지만 투자자도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해고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노사관계가 협력적이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된다. 네트워크 내에서 장기적인 평판이 중요하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해서 적대적 인수합병은 드물다. 노동조합의 권한이 강하여 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산업·기업 간 임금격차가 작기 때문에 이직이 적고 노동자들의 학습 의욕 또한 높은 편이다.

각국의 제도가 하나로 수렴하지 않고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것은 제도적 상호보완성 때문이다. 어떤 두 제도가 서로를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 줄 때 두 제도 사이에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유연한 노동시장제도 덕분에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단기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용이해진다. 반대로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원이 신속히 이동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유연함에

도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고 노동력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는 금융시장제도와 노동시장제도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지만 실제로는 복지제도, 교육·훈련 제도, 정부의 시장정책 등 다양한 측면의 제도들이 상호보완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도를 점진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개선할 수 없다. 따라서 각국의 제도는 하나의 제도로 수렴하지 않고 서로 보완적인 제도들의 집합으로서 두 가지 유형의 시장경제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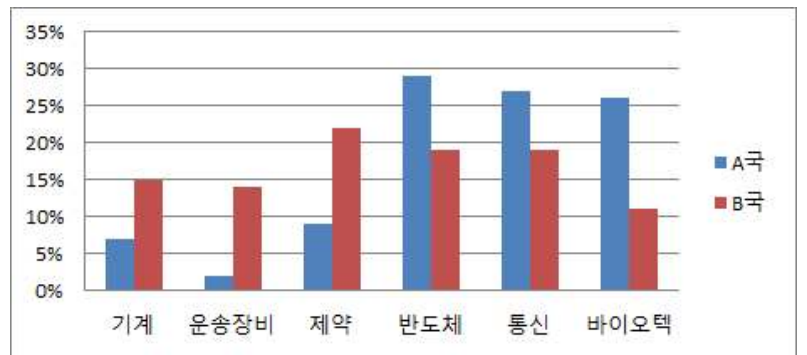
2-1. 조정시장경제에서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시오. (120자 이내) [30점]

2-2. [그림]의 A국과 B국은 서로 다른 유형의 경제제도를 가지고 있다. A국과 B국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제시문과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쓰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160자 이내) [30점]

<보기>

숨페터는 혁신이란 기존의 지식을 재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혁신을 주도하고, 기존의 기업은 새로운 기업으로 계속해서 대체되는데 이러한 “창조적 파괴”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후일 숨페터는 정반대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거대한 연구·훈련조직을 통해 이뤄지는 누적적인 기업 내 지식 축적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번 앞서나간 기업은 계속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따라서 숨페터는 시장의 독점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후세 경제학자들은 숨페터의 두 가지 혁신 중 한 가지가 지배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전자가 중요한 산업을 숨페터 마크 I 산업이라고 부르며 반도체, 통신, 바이오텍 산업이 여기에 속한다. 후자가 중요한 산업을 숨페터 마크 II 산업이라고 부르며 기계, 운송장비, 제약 산업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 분야별 특허 비율



A국: \_\_\_\_\_

B국: \_\_\_\_\_

이유: \_\_\_\_\_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지금까지 아주 참된 것으로 간주해 온 것은 모두 감각으로부터 혹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감각은 종종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으며, 한 번이라도 우리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한 일이다. .... 나는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종이를 보고 있다. 내가 이리저리 움직여 보는 이 머리는 잠 속에 있지 않다. 나는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 보고, 또 느끼고 있다.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런 것은 이처럼 판명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속은 적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이런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깨어있다는 것과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구별해 줄 어떤 징표(徵標)도 없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이런 놀라움으로 인해 내가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에 빠져 들게 된다.

- 데카르트, <성찰> 중

(나) 우리의 전 생애가 꿈이며, 그 꿈속에서 나타난 모든 대상들을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낸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런 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들에 대한 지식이 확실성을 결여한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는 가정은 우리의 상식적인 가정, 즉 우리의 감각을 유발시키는 대상들이 우리와는 독립적인 별개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만약 한 마리의 고양이가 어느 한 시점에 방 한구석에 나타났다가 다른 시점에 다른 구석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고양이는 한 장소에서 중간 위치의 장소를 지나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정이다. 그러나 만약 고양이가 단순히 감각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면, 내가 고양이를 보지 못한 장소에는 고양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셈이 된다. 그래서 내가 고양이를 보지 못한 동안에는 고양이가 존재하지 않다가 새로운 장소에 갑자기 불쑥 나타났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같은 증거를 설명하는 두 가정이 있을 때, 보다 더 자연스럽고 단순한 가정이 선호된다는 원리에 따라, 우리의 상식적 가정을 믿을 좋은 이유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다) 데카르트의 ‘꿈의 논증’은 현대에 ‘시뮬레이션 논증’으로 진화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어떤 시대의 역사 전체를 시뮬레이션 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고 또 빈번해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오늘날처럼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닐 것이다. 엄청난 처리 능력을 가진 컴퓨터로 인해, 미래의 시뮬레이션은 극단적으로 세밀해서, 모든 건물, 지리적 지형, 개인들조차도 시뮬레이션 할 것이다.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개인들은 살아 있는 인간과 같은 수준의 능력, 복잡성, 지능, 심지어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이들은 자신들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은 가짜 세계를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 역시 그들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 사실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시뮬레이션 된 사람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 계산은 간단하다. 2020년에 대략 60억 명의 생물학적 인류가 존재한다고 하면,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2020년도를 시뮬레이션 한, 거의 수조 명의 소프트웨어 인류가 살게 될 것이다. 이들 모두는 현재의 우리들처럼 자신들이 생물학적인 인류라고 생각하며 살 것이다. 하지만 우리를 압도하는 대다수의 이들 개인들은 사실 진짜는 아니다. 이들은 스스로 생물학적 존재라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나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3-1. 내 앞에 종이 한 장이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서, 나는 실제로 내 앞에 종이 한 장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질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 (나), (다)가 각각 어떻게 판단할지 쓰시오. (각 30자 이내) [20점]

3-2. 우리의 과거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기억에 기반한다. 그러나 기억이 과거에 대한 “징표”라는 견해에 대해서 <보기>와 같은 반론이 있다. (나)의 논리를 적용하여 이를 비판하시오. (140자 이내) [20점]

————— <보기> —————

세계가 5분 전에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가진 것 같은 기억들을 그대로 가진 채 창조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기억은 과거에 대한 징표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3-3. ㉠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을 때,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25자 이내) [10점]

내가 시뮬레이션 된 사람일 확률

$$= \frac{\text{㉠}}{\text{시뮬레이션 된 사람의 수} + \text{실제 생물학적 사람의 수}}$$

㉡: \_\_\_\_\_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예술작품은 인간의 계몽이나 도덕적 고양과 같은 다른 목적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미적인 대상에 사회적 유용성의 기준을 들이미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술과 윤리는 서로 다른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가치의 영역이며 윤리적 기준이 미적 영역에 적용될 수 없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도덕적인 작품, 혹은 비도덕적 작품이라는 것은 없다. 잘된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판단을 하는 것은 판사와 성직자의 일이지, 예술가의 목표는 아니다. 예술가는 경험을 파악하고 그것을 생기 있게 하고, 모든 경험이 지닌 상상적이고 정서적인 기쁨을 즐길 뿐이다. 요컨대 예술가는 선과 악, 도덕의 문제를 넘어서 있다. 예술의 목적을 예술 바깥에서 찾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미적 가치를 제외한 모든 목적은 예술 창작과 감상을 변질시킬 수 있다.

(나) 예술의 가치는 미적 가치 외에도 공공성 구현에 있다. 공공성의 핵심적인 본질은 바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이다. 예술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가치규범을 내재해야 한다. 물론 창의적 예술의 발전을 위해 표현·창작의 자유는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적 영역으로 나오게 된 예술이라면 사회 내 대다수 구성원이 따르는 가치체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물론 가치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동시대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공유하는 가치규범을 정면으로 거슬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예술가의 창작활동은 순전히 개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해야 한다. 자신 이외의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예술은 지금 당장의 이해관계를 떠나 미래의 효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예술의 존재가치를 평가할 때 지금 당장의 가치만 따져서는 곤란하며 먼 장래에 기대되는 효용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의 경계는 불분명하며, 예술작품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평가들이 엇갈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대립할 때, 그리고 어떤 의견이 최적인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할 때, 최종 결정은 보통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 그렇다면 공적 영역에 존재하는 예술에 대한 평가 역시 마땅히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 예술은 개념적 사고와 이성적 논리가 미치지 못하는 세계를 이야기한다. 사람은 계몽주의적 지식에 감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술 작품을 통한 감동으로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고 삶이 변화했다는 이야기는 종종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예술은 인간 삶의 부조리와 모순을 드러내고 우리의 성찰이 필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적 시선을 제시하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윤리적 전환의 계기, 새로운 시민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술이 사회적 가치를 갖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기능적이고 산업적인 접근법을 통해 수치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술의 사회적 기여는 비가

시적이고, 물리적이기보다 화학적이며, 그 사회의 체질을 형성하면서 발현된다.

현대 문화행정은 과거 엘리트 중심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예술을 민주화시키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바람직한 예술은 다수의 선호를 대변하는 것으로 종종 단순화된다. ‘국민수요’, ‘국민체감’과 같은 행정 조어들이 예술의 영역까지 비집고 들어왔다. 국민 다수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공공재원을 투여한 사업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예술의 민주화도 실현된다는 논리가 완성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술 향유자는 소비자와 동일시되고 향유자의 당장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문화행정의 목표가 된다. 국민의 기호는 ‘현재’의 시점에서 언제나 평균적이고 안전한 미적 취향으로 박제되고, 기존의 사고를 넘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계기로서의 예술은 부정된다.

유럽에서는 절대주의 정치 체제에 맞서 시민세력이 부상하면서 예술이 근대사회의 공론장을 주도했다. 독자나 관람객과 같은 예술의 향유자는 공중이라고 불렸다. 진정한 예술의 가치는 이러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즉 서로 다른 개인들이 예술을 매개로 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꺼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에게 지금 여기, 삶의 문제들을 성찰케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예술이 가진 힘이다.

4-1. (가), (나), (다) 각각의 입장에서 <보기>의 ㉠에 대해 평가하시오. (220자 이내) [30점]

— <보기> —

A시가 주최하고 지원하는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의 일환으로 ‘사회적 예술’을 주제로 한 전시가 예정 중이다. 전시 담당 큐레이터에 의해 전시에 참여할 작가들과 작품들이 모두 선정되어 전시 준비가 진행되던 중, 프로젝트 주관 맡은 미술협회와 전시감독은 ㉠ 선정된 몇몇 작품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며 작품을 변경 혹은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A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해당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높은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 비판하는 관점을 보여주는 작품이 전시되면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시의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논리였다. 해당 작가들은 이를 사전 검열로 규정하고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작가들과 연대하여 전시 참여를 거부하였다.

4-2. (다)의 관점에서 ㉠의 입장을 비판하시오. (160자 이내) [30점]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용서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재채기를 해서 침이 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전… 저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고, 괜찮으니 앉으시다. 공연이나 계속 보시지요.”

체르바코프는 어쩔 줄 몰라 어색하게 미소 짓고는 다시 공연을 보기 시작했다. 보긴 보지만 그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 온통 불안할 뿐이었다. 막간 휴식 시간에 그는 브리즈잘로프에게 다가가서, 그의 주위를 잠시 맴돌다가, 아주 소심하게 분명치 않은 발음으로 말했다.

“제가 재채기를 해서 침이 튀었습니다, 장관님… 용서해 주십시오… 전 사실… 전혀 그런…”

“아, 아닙니다… 나는 이미 다 잊었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시는군요!”

[중략]

다음 날 그는 또 해명하려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가 어제 찾아보았던 건, 장관님” 장관이 무슨 일이냐는 듯 쳐다보았을 때 그는 소심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을 놀릴 생각이 있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 전 단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침이 튀어서, 그걸 사죄드리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놀리다니요, 전 전혀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놀린다는 건 단지,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지 않을 때나…”

“당장 나가!!” 격노한 장관이 몸을 떨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왜 그러십니까?” 공포에 질린 체르바코프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장 나가!!” 장관이 발을 구르며 다시 소리쳤다.

체르바코프의 뺨속에서 뭔가 끊어졌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는 뒷걸음쳐 거리로 나와 간신히 걸었다… 기계적으로 집에 도착해 제복도 벗지 않고 그는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죽었다.

(나) [앞부분의 줄거리: 어렵게 장만한 외투를 도둑맞은 하급관리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절차만 복잡할 뿐 결국 찾지도 못할 관공서에 신고를 하는 대신 유력 인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귀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오?” 그는 퍽퍽말을 이었다.

“절차도 모르나? 어디에 들른 거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런 일이라면 먼저 관공서에 문서로 제출했어야지. 그러면 관공서에서 계장과 부장을 거쳐 비서에게 전달될 테고, 그다음 비서가 내게 보고할 텐데…”

“하지만 각하…”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겨우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은 정신을 수습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때 그는 땀이 무섭게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각하께 감히 폐를 끼치고자 결심하는 것은 사실 그 비서라는 사람들은 좀 믿을 수가 없어서…”

“뭣이 어찌고 어찌?” 고위층 인사가 말했다.

“어디서 그런 정신 상태를 갖게 됐나? 그런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젊은이가 상관이나 뒷사람 앞에서 이렇게 난폭하게 굴다니!”

아마 이 고위층 인사는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이미 오십 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만일 상대적으로 젊은이라고 불릴 수 있다 해도, 그것은 그가 일흔 살 먹은 노인과 비교될 때뿐이었던 것이다.

“자네가 감히 그럴 수 있는가, 자네는 누구와 말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가? 자네 앞에 누가 있는지 이해는 하는가? 대답해 봐.”

이 순간 그는 발을 구르며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무서워할 정도로 언성을 높였다.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고 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만일 경비원이 달려와 그를 부축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실려 나갔다. 기대 이상의 효과에 만족한 고위층 인사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정신까지 빼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도취되었으며 결눈질로 사무실에 와있던 자신의 친구의 반응을 살폈다. 자신의 친구조차 어쩔 줄 모르고 공포감마저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또 한 번 만족했다.

[뒷부분의 줄거리: 호된 질책으로 고통받던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추운 거리를 헤매다 결국 후두염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다 죽고 만다. 이후 시내에서는 외투를 뺏는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돈다.]

(다)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하급관리들은 개별적 자아를 포기하고 자동인형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를 대하는 독자들의 태도는 상이할 수 있다. 하급관리들은 ㉠ 위계적 질서의 포로가 되거나 혹은 ㉡ 스스로 위계적 원리를 체현한다. 전자는 자의식을 잃고 위계적 질서에 공포감을 느끼면서 주위의 일상적인 모욕과 학대를 당하는 관료사회의 희생자이다. 이러한 부류의 관리는 문학 작품에서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된다. 반면 후자는 자기 비하와 굴종을 받아들여 인간적 가치와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면서 관료사회에서 살아남기를 바란다. 나아가 자신은 이 관료제 안에서 승진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인물은 작품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더라도 독자들로 하여금 비웃음과 비판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5-1. 하급관리인 (가)와 (나)의 주인공이 불안해하는 공통된 이유를 관료제의 한 특성을 밝힌 <보기>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30점]

<보기>

관료제 안에서 개인은 자기 자신이기를 그만둔다. 따라서 그는 모든 타인과 똑같아지고, 타인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모습과 똑같아진다. ‘나’와 외부 세계의 차이는 사라지고, 주위에 있는 수백만 명의 다른 자동인형과 똑같기 때문에 관료제 안에서는 고독과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일 관료인 그가 관료제의 외부에 위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관료로서의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5-2. ㉠과 ㉡에 해당하는 하급관리는 누구인지 (가)와 (나)에서 찾고, 이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유를 (다)의 구별법에 따라 각각 서술하시오. (180자 이내) [30점]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질서정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 원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질서정연한 사회'에는 '자유주의적 사회'와 '적정 수준의 사회'가 포함되는데 그러한 사회는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며 다른 국가를 공격하지도 않는다. 적정 수준의 사회는 자유주의적 사회에 미치지 못하지만 적정 수준의 협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상당히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 '고통받는 사회'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이 불리하여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회인데 다른 국가에 대해 공격적이지는 않다. 이런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무법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도 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에 대해 공격적인 사회이다. 이런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한 체제를 확립하여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 때까지만 부과된다. 만약 원조를 통해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사회 제도가 개선된다면 더 이상 그 사회에 원조를 해야 할 의무는 없게 된다. 원조의 의무에는 일정한 차단점이 있는 것이다. 기근의 문제는 대체로 물질적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다. 가난한 국가라도 기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보장된다면 빈곤으로 인한 고통은 점차 감소한다. 그리고 고유한 문화나 역사에 따라 각 사회에서 요구되는 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평준화할 필요도 없다. 풍족하지 않더라도 일을 적게 하고 여유롭게 사는 삶을 선호하는 사회도 있고, 힘들지만 일도 많이 하고 저축도 많이 해서 풍요롭게 사는 삶을 선호하는 사회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의 방식의 차이를 굳이 조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해외 원조는 고통받는 가난한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나)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란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이며 이때 좋은 결과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가 더 좋은 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공리의 원칙에 의거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빈곤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빈곤으로 인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을 돕는다면 그들의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할 경우에 그들이 입는 손실은 별로 크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얻는 이익은 매우 크다. 기부금은 부자에게 작은 돈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커다란 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계산할 때 그 범위에는 자기 나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자국민을 넘어 인류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쾌락의 총량은 증가시키고 고통의 총량은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도덕적 의무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 된다. 기아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죽도록 방치하는 것'과 그들을 폭력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동기나 의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 가지 모두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낳음으로써 고통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와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익을 더 많이 고려하거나 나와 인종, 국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익을 적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이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원조에서 국가의 경계선은 중요하지 않으며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경을 넘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원조에 나서야 한다.

6-1. 해외 원조에 대한 제시문 (가), (나)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6-2. <보기>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 <보기> —————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과정에 우연적 요소가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타고난 능력, 가정환경, 소속 국가 등은 우연인데 그러한 우연적인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망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의 우연적인 여건을 모른다고 가정한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분배 방식을 선택한다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는 차등의 원칙을 선택한다. 자신의 여건이 가장 불리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여 그러한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분배 원칙이다.

6-3.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보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 <보기> —————

지구상에서 빈곤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 재산의 일부를 기부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개인적인 작은 기부만으로는 세계 전체의 커다란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눈에 띄 만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것은 마치 '대양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라면 기부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

# 2021학년도 논술(AAT) 모의고사 예시 답안 및 채점 기준(인문계열)

## 인문계열 1번 예시 답안

1-1.

a. 주체, b. 상대

1-2.

예1) 과도한 높임 표현을 교정하는 것은 구성 요소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여 안정을 이루는 일에 해당된다.

예2) 과도한 높임 표현은 규범을 어긴 행위로서 질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수정되어야 한다.

1-3.

화자인 직원은 고객들이 공손하지 않다면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청자인 고객들은 과도한 높임법을 예의와 격식 있는 대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 인문계열 1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괄호 안에 들어가는 정답을 정확히 기술해야 함.</li> <li>- ㉠와 ㉡에 각각 10점씩 배점</li> <li>- ‘주체 높임법’이나 ‘상대 높임법’ 등과 같이 문제와 중복된 표현을 사용하면 각 5점씩 감점</li> <li>- 정답 이외에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기술이 추가되면 5점 감점</li> </ul>	2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론에서 가치나 규범의 혼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각 구성 요소의 기능 회복을 제시한 점을 높임법에 적용시켜 서술해야 함.</li> <li>- 높임법의 오류를 사회질서 파괴의 원인으로 서술할 경우 0점</li> <li>- 높임법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과 동일시 한 경우 0점</li> <li>- 사회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기능론의 특성만 기술할 경우 10점</li> <li>- 높임법과 사회 규범의 유사성만을 기술할 경우 10점</li> <li>- 높임법의 오류와 사회적 문제나 갈등의 유사성만 기술할 경우 10점</li> <li>- 전반적으로 예시 답안이나 부분 답안의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각 서술의 명확성이나 논리 구조가 허술한 경우 5점 감점</li> </ul>	2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자인 직원과 청자인 고객의 입장이 분명히 구분이 되며 사물존칭을 사용하게 되는 각각의 원인을 정확히 서술해야 함.</li> <li>- 청자와 화자의 입장을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 0점</li> <li>- 청자나 화자의 입장 가운데에 하나만 정확히 서술할 경우 10점</li> <li>- 화자의 입장을 청자로, 청자의 입장을 화자로 서술한 경우 각 10점 감점</li> <li>- 전반적으로 예시 답안이나 부분 답안의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각 서술의 명확성이나 논리 구조가 허술한 경우 5점 감점</li> </ul>	20

## 인문계열 2번 예시 답안

2-1.

강한 노동조합 덕분에 이직률이 낮고, 적대적 인수합병이 드물어서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가능하다. 반대로 장기적 관점의 금융시장 덕분에 강한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노사관계가 협력적이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된다.

2-2.

A국: 자유시장경제

B국: 조정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는 인수합병, 노동자의 재배치, 채용과 해고가 쉽기 때문에 기존 지식을 재조합해야 하는 스펙터 마크 I 산업에 특화할 것이다. 조정시장경제는 노동자들이 장기고용되기 때문에 누적인 기업 내 지식 축적이 중요한 스펙터 마크 II 산업에 특화할 것이다.

## 인문계열 2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장제도와 금융시장제도의 상호보완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함.</li> <li>- 노동시장제도 덕분에 금융시장제도가 잘 작동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면 15점</li> <li>- 금융시장제도 덕분에 노동시장제도가 잘 작동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면 15점</li> <li>- 상호보완성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 5점 감점</li> <li>- 상호보완성에 대한 설명이 매우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 10점 감점</li> <li>- 상호보완성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각 0점</li> <li>- 전반적으로 두 방향 상호보완성을 설명하였으나 표현 등이 부족한 경우 5점 감점</li> </ul>	3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국과 B국의 제도형태를 제대로 적고, 경제체제의 특징과 기술의 특징을 제대로 연결시켜 서술해야 함.</li> <li>- A국과 B국의 제도형태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 0점</li> <li>- A국과 B국의 제도형태를 제대로 적었으나 그 이유를 적지 않거나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경우 0점</li> <li>- 경제체제의 특징과 기술의 특징을 제대로 연결시켜 서술한 경우 각 15점.</li> <li>- 경제체제의 특징이나 기술의 특징만 서술하거나 연결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 5-10점 감점.</li> <li>- 전반적으로 경제체제의 특징과 기술의 특징을 연결시켜 서술하였으나 예시답안과 같이 명확하게 각 기술에 맞는 특징을 열거하지 못한 경우 5점 감점</li> </ul>	30

### 인문계열 3번 예시 답안

3-1.

(가) 충분한 근거가 없는, 확실성을 결여한 믿음이다.

(나) 확실성은 없지만 그것을 믿을 좋은 근거가 있다.

(나) 내 앞에 실제 종이가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또는 합당한 근거가 없는 믿음이다.)

3-2.

내가 기억하는 대로 과거가 존재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세계가 5분 전에 지금 가진 기억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가정보다 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가정이다. 따라서 내가 기억하는 대로 과거가 존재했다고 볼 좋은 근거가 있다.

3-3.

시뮬레이션 된 사람의 수

### 인문계열 3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나), (다)에 제시된 견해가, 제시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에 어떤 함축을 갖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li> <li>- 내 앞의 종이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합당한 근거를 갖는지에 대한 각 견해의 함축을 정확히 파악하고 쓴 경우. (20점)</li> <li>- 세 견해의 함축 중 일부만을 정확히 적은 경우 (각 6점)</li> <li>- “내 앞의 종이는 있다(없다)”, 또는 “내 앞의 종이가 있다고 믿을 것이다” 등과 같이, 믿음이 합당한(올바른, 적절한) 근거(이유)를 갖는지에 대한 언급을 누락한 경우. (각 4점)</li> <li>- 그 외의 경우 (0점)</li> <li>-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li> </ul>	20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에서 제시된 논리를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li> <li>- (나)에서 감각에 기반한 물리적 대상에 대한 지식에 적용한 논리(상식적 가정의 “단순성”이나 “자연스러움”에 호소하는 논리)를, &lt;보기&gt;의 기억에 기반한 과거에 대한 지식에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적은 경우 (20점)</li> <li>- (나)의 논리를 제대로 적용했으나, 두 대비되는 가정(즉, “세계가 5분 전에 창조되었다”는 가정과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과거가 존재했었다”는 가정)를 잘못 파악한 경우 (10점)</li> <li>- (나)에 제시된 논리를 이해했으나, 그 논리를 단순히 반복하고 &lt;보기&gt;의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지 않은 경우 (5점)</li> <li>- 그 외의 경우 (0점)</li> <li>-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li> </ul>	20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에서 제시된 논리를 확률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li> <li>- “시뮬레이션 된 사람의 수” 또는 “소프트웨어 인류의 수,” “생물학적 존재가 아닌 사람의 수,” “스스로 생물학적 존재라 믿지만 시뮬레이션 된 사람의 수” 등의 경우 (10점)</li> <li>- “생물학적 인류의 수,” “생물학적 인류라고 믿는 사람의 수” 등, 그 외의 경우 (0점)</li> <li>-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li> </ul>	10

## 인문계열 4번 예시 답안

4-1.

(가)는 ㉠와 같이 예술을 미적 가치 외에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논리에 반대한다. (나)의 입장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오게 된 예술은 공익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공익은 다수가 공유하는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므로 ㉠에 동의할 수 있다. (다)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에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는 ㉠에 반대할 것이다.

4-2.

예1) (다)에서 예술의 공공성은 우리 삶의 윤리적 전환이나 새로운 시민성 습득의 계기를 만드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에 있다. 즉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꺼내놓고 논의하며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럼 현재 시점의 다수의 기호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2) (다)가 주장하는 예술의 공공성은 다수결이 아닌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에 있는데 ㉡은 공공성을 단순히 다수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관과 기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가 동의하기 어렵다.

예3) (다)에서의 예술의 공공성은 ㉡이 주장하듯 단순히 다수의 현재 가치관과 기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고를 넘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데에 있다.

## 인문계열 4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p>▶ (가), (나), (다) 각각의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여야 함. (아래 예시 답안 참조)</p> <p>- (가), (나), (다) 각 입장에 대한 이해나 평가가 틀렸을 경우 각 10점씩 감점</p> <p>- (가), (나), (다) 각 입장에 대한 서술이 올바르더라도 ㉠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가 없을 시 5점씩 감점.</p>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30
4-2	<p>▶ (다)에서 나타나는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 주장의 차이를 명확하고 이해하고 (다)의 입장에서 비판하여야 함. (아래 예시 답안 참조)</p> <p>- (다)에서 나타나는 예술의 공공성의 특징을 다양한 표현들로 풀어 쓸 수는 있지만 예술이 사람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포함되면서 ㉡ 주장과 차이가 드러나야 온전하게 이해한 것으로 평가함.</p> <p>- 단순히 ㉡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옳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인 경우, 0점.</p> <p>-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이자 공론장으로서의 예술을 특징을 서술하지 않고, 기능적이고 산업적인 접근법의 문제만을 서술하며 ㉡ 주장을 반박할 경우 15점 감점.</p> <p>- 현재로부터의 변화의 의미를 담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을 꺼내놓게 하는 것’으로 예술의 특징만을 서술한 경우, 10점 감점.</p> <p>- (다)에서의 공공성과 ㉡이 주장하는 공공성의 특징의 차이를 정확하게 서술하지 않은 채, (다)에서의 주장을 요약, 정리해서 ㉡ 주장을 반박할 경우, 관련 내용 서술의 적실성에 따라 5~15점 감점.</p>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30

## 인문계열 5번 예시 답안

5-1.

두 주인공은 장관의 질책을 받자 관료제 안에서 자신들의 관료로서의 지위가 위협받게 되었으며 나아가 자신들의 존재 역시 부정될 것을 두려워하여 불안을 느낀다.

5-2.

㉠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이고 ㉡은 체르바코프이다.

체르바코프는 스스로 위계적인 원리를 체현하는 인물로 장관의 미움을 사면 관료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죽음에 이르렀지만,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관료적 위계질서의 희생자로서 장관을 두려워하고 그로부터 모욕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

## 인문계열 5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위층 관리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위협받는 하급관리의 심리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li> <li>- 두 하급관리 모두 장관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면 10점</li> <li>- 관료제 안에서 자신의 지위가 위협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면 15점</li> <li>- 관료제 밖으로 내몰리면 두 하급관리는 존재조차 위협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면 5점</li> <li>- 강한 '질책'은 두 하급관리가 장관에게 실수했다는 점 혹은 관료로서 위계적 질서를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대체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하지 않으면 5점 이내의 감점</li> <li>-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맞춤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답안 문장의 완결성에 따라 5점 이내의 감점</li> </ul>	30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고 두 하급관리의 비참한 최후를 (다)에 따라 명확히 구별하여 서술하여야 함.</li> <li>- ㉠과 ㉡이 누구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면 10점</li> <li>- 체르바코프는 위계적 원리를 체현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혹은 자신의 잘못을 계속 사과하는 그의 비굴한 태도 등에 대한) 명확한 서술이 있으면 10점</li> <li>-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관료제의 희생자임을 드러내는(혹은 장관의 고압적인 자세 등에 대한) 명확한 서술이 있으면 10점</li> <li>- 답안 문장의 완결성에 따라 3점 이내의 감점</li> <li>- 맞춤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5점 이내의 감점</li> <li>-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으면 5점 이내의 감점</li> </ul>	30

## 인문계열 6번 예시 답안

6-1.

제시문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해외 원조의 의무를 주장하지만 그 목적이나 대상에 차이가 있다. (가)는 정치 체제의 개선을 위해 가난한 국가에게 지원하자고 주장하며, (나)는 인류의 고통 감소와 이익 증진을 위해 지구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6-2.

제시문 (가)는 국제적 분배에서 우연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차등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원조를 해야 하는데 제시문 (가)는 원조에 의한 정치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적 방식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6-3.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기부의 효과가 큰지 작은지가 아니라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적인 기부로 조금이라도 빈곤을 막아서 그들의 고통을 약간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기부를 해야 한다.

## 인문계열 6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p>▶ 해외 원조에 대한 제시문 (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20점)</li> <li>-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10점)</li> <li>-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서술하지 못한 경우(0점)</li> </ul>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6-2	<p>▶ &lt;보기&gt;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의 주장을 제대로 비판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판적 주장과 그 근거를 모두 서술한 경우(20점)</li> <li>- 비판적 주장과 그 근거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10점)</li> <li>- 비판적 주장과 그 근거를 모두 서술하지 못한 경우(0점)</li> </ul>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6-3	<p>▶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lt;보기&gt;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입장과 &lt;보기&gt;에 대한 비판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경우(20점)</li> <li>- (나)의 입장과 &lt;보기&gt;에 대한 비판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10점)</li> <li>- (나)의 입장과 &lt;보기&gt;에 대한 비판 내용을 모두 서술하지 못한 경우(0점)</li> </ul>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